

# 상장사 1분기 이익 전망 하향곡선... 연간 실적도 '비관적'

올해 코스피 193개사 예상영업익 전년 대비 5.59% 줄어든 271조 글로벌 통상환경·경기 악화 이유 “금리 인하시 유동성 효과 기대 성장기대 기업 투자매력 있어”

흔들리는 주가에 실적도 없는 모양새다.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 이익 전망치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지고 있다. 더 문제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 실적이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3개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70조9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86조9896억원)보다 5.59% 감소한 수치며,

지난 1월 전망치(274조5398억원)와 비교해도 1.31% 줄어 들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1조84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22.84% 급감했다. 지난해 실적(32조7260억원)과 비교해도 1조642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이외에도 시총 상위인 SK하이닉스는 1.70% 감소한 33조5275억원, LG에너지솔루션은 무려 38.46% 줄어든 1조6373억원으로 예측됐다. 현대차 역시 14조4979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72% 낮게 전망됐다.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내 경기 상황의 동시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국내 정치 불안까지 맞물리며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으로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수출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 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관세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적 개선 시점은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0%대로 제시한 것은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처음이다. 이 기관은 약 70명의 경제학자가 소속된 거시경제 분석 전문 기관이다.

이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에서 1.5%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에서 1.2%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HSBC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당장 실적이 잘 나온 기업보다 구조적으로 ‘더어라운드’ 되는 양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둔화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 효과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모멘텀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며 “성장 기대가 유효하거나 수익의 안정성이 입증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한국투자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검토중 ‘종합금융’ 도약 속도



김남구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보험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 진출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며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 인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보험업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 인수는 마땅한 상대가 있어야 하고, 또 매각 측과 우리의 전략이 맞아 하기 때문에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그간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나올 때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자회사로 증권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보험사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험사 인수는 계열사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증권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투그룹은 보험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구조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 “홈플러스·MBK, 신용등급 강등 사전인지 가능성 포착”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브리핑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 확인 감리전환, 보다 세밀하게 살필 것”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를 포함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지난 2월 28일이지만, 이보다 이르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평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MBK는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직후인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의 불법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사에서 홈플러스 검사 및 조사,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동양사태나 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도 발견해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함 부원장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를 불러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19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거래 조사와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MBK파트너스, 신용평가사, 신용증권,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검사·조사·감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향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성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MBK는 회생절차 준비를 2월 28일 이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미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시기와 우선순위 등이 불확실해 협력사와 입점사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임대료 지급을 미루면서 모호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교보증권 사원증 태그로 기부 ‘기부키오스크’ 운영

교보증권은 지역사회 공감을 통한 나눔의 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 키오스크’는 새로운 기부 트렌드를 반영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교보증권 기부 키오스크’는 사원증 태그로 기부가 이뤄지는 방식이며 횡수 제한 없이 최소 3천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키오스크에는 쪽방촌 거주, 결손 가정, 중증장애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스토리를 접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이뤄진다. 기부는 온라인 기부플랫폼 ‘해피빈’ 사이트나 QR코드를 통해 본사 입사 및 방문객,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해 의미를 더한다. 모금액은 위기 가정 아동이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생계·교육·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美 증시 변동성... 배당·채권 ETF로 ‘방어적 투자’ 전략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연간 배당수익률 4% SCHD 4082만 달러어치 순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스테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며 배당 및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에 나서

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증시 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적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3월 25~31일) 서학개미들은 슈왓 미국 배당주 ETF(SCHD)를 4082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 ETF는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인덱스를 따르는 분기배당 상품으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통신사 버라이즌과 코카콜라, 석유·천연가스 기업인 쉘브론 등 최근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종목들

이 포함돼 있어 방어적인 투자 전략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CHD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4%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인 JP모건 나스닥 지수 프리미엄 인컴 ETF(JEPQ)에도 1538만 달러가 유입됐다. 이 상품은 나스닥100 지수 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주가 하락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서학개미들은 배당 ETF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높은 미국 기업들의 채권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아이박스 미국 달러 투자등급 회사채 ETF(LQD)를 2678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LQD는 BBB 등급 이상의 회사채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연초부터 미 증시는 지속적인 조정을 겪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10.4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4.6%, 다우지수는 1% 가까이 내렸다.

김승혁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시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정책들이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2일 예정된 관세 발표 이후에도 정책적 의구심이 남아있어 증시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